

EC통합과 유럽 양돈시장 전망



PETER BEST
(Pig International지 편집장)

◇…본고는 세계적인 양돈 전문잡지인 Pig International지 편집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PETER BEST씨가 본지 창간 13주년을 축하해 주기 위하여 특별히 영국에서 보내온 것입니다. 본고는 최근 유럽의 최대 관심사인 EC통합을 앞두고, EC통합에 따라 유럽내 양돈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전망한 것으로 독자여러분의 시야를 넓혀 드릴 것입니다. 원고를 보내주신 PETER BEST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편집자주>……………◇

대한양돈협회가 발간하는 월간양돈의 창간 13주년을 맞아 유럽내의 많은 사람들이 향후 10년간 유럽의 양돈시장내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여러가지로 전망해 볼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변화를 예상해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최근 유럽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속한 정치, 경제적 변화로 인해 다음 세기 초의 유럽 내 국가들간의 무역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를 추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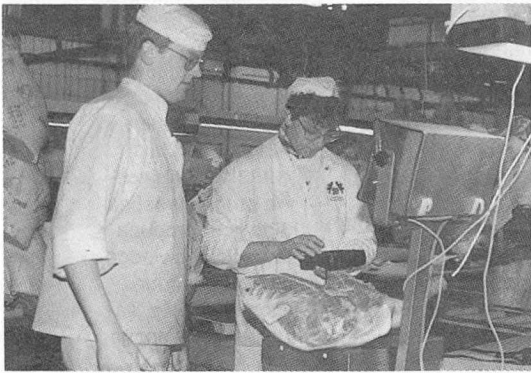
유럽 내 무역 시장에서의 어떠한 경미한 변화도 유럽의 양돈업자들이 참여하게 될 전체 유럽 시장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유럽의 양돈업자들은 도살장 안에서나 돼지 가격을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EC 돼지고기 소비량 1인당 평균 40kg

현재 돼지고기 판매에 있어서 유럽은 2개의 개별시장인 동시에 한개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들 중 더 발달된 시장은 서유럽 대륙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소위 EC라 불리는 시장이며, 이 서유럽 지역에서는 3억4천만명의 사람들이 매년 평균적으로 개인당 40kg의 돼지고기를 소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올해 전체 돼지고기 소비량은 1천 3백50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C 국가들간에 돼지와 돼지고기는 정기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와 돼지고기는 EC의 국가들로 수출하는 것은 더 어려



운 일이다. 비록 통합된 EC 국가들이 최근 연례적으로 3-5%의 돼지고기 생산 증가율을 보이고는 있지만, EC국가들의 사료와 식품가격은 세계시장의 평균 가격선 이상에 있기 때문에, 비 EC국가들로의 수출물량은 수출되는 대신 여분으로 비축되어야 한다.

현재 유럽내에 형성되어 있는 두번째 돼지고기 시장은 유럽 중부와 동부지역의 국가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두 지역에는 약 2억만 소비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지금은 독립공화국 혹은 CIS로 알려져 있는 구소련 연방(USSR)의 영토내에 또 다른 3억만 인구가 그 소비자로 자리잡고 있다.

동유럽 대다수의 사람들은 연간 많은 돼지고기를 먹는 식생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개인당 40kg이 넘는 양을 소비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연간 돼지고기 요구율은 엄청난 양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돼지고기를 소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돼지고기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도 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동유럽 국가들의 일부 국가만이라도 EC의 회원국이 된다면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라. 그러한 상상은 금세기 말경 아니 몇년후면 명확한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 2000년까지 6개국 EC에 추가 가입할 듯

대한양돈협회의 월간양돈이 최초로 발간된 다음해인 1980년에 서유럽 유럽공동체들은 9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이후로 3개국이 더 가입했고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가 6개국으로 늘어났다. 예상되는 새로운 가입국으로는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몇개국(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이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구소련의 무역권의 일부로서 간주되어지고 있는 동유럽 지역의 국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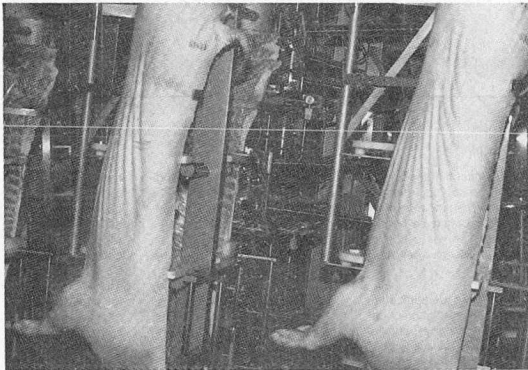
특히,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은 서기 2,000년 이전에 EC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C 회원국이 된 일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유럽공동체에 가입함으로써 현존하는 돼지고기 소비 인구가 부분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들(스칸디나비아 국가들)자체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제한되어 있는 동시에 많은 생산비용이 요구된다. 반면, 새로운 동유럽 회원국들은 사실상 유럽공동체내의 전체 돼지고기 시장의 공급과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네덜란드 동유럽국가에 비해 생산비 40%높아

우선 동유럽 국가들은 그들의 농장과 사료제조공장, 도살장 등을 현대화하고 개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을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이란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 이후에야 이들 동유럽 국가들은 전체 EC국가들을 위한 돈육생산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그들의 생산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되리라는 생



각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서유럽 EC국들의 양돈업자들을 가장 걱정스럽게 만드는 상황이다. 그 예로 네덜란드를 볼 것 같으면, 한마리의 도살돈을 위한 평균 생산 비용은 동유럽의 다른 국가들보다 약 40%가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까지 EC회원국들이 된 12개국들(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은 돼지고기 생산량에 있어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아왔다.

1990년에 EC 중앙관리부는 1997년까지 EC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단지 1천4백70만톤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러한 예상은 너무 소심한 예측이었음이 곧 드러났다. 1991년, 공식 기록된 EC 생산량은, 비록 1992년에는 1천4백10만톤으로 감소되리라 예상되지만, 1천4백34만톤에 이르고 있으며, 1993년에는 회복세를 보여 1천4백50만톤의 생산량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개별 생산국은 연간 3백50만톤의 돼지고기 생산량을 보이고 있는 독일이다.

서독과 동독의 통합은 새로운 한개의 시장을 창출해 낼 것이나, 이에 수반되는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그 문제들이란, 구 동독 지역(DDR)은 돈사 시설들이 대부분 구식이고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비용과 품질 문제에 있어 서유럽 국가들과 동일한 경쟁선상에 서서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농장시설들을 재 신축하는 결과로써, 독일의 돼지 생산량은 50%가 줄어들 것이고, 이로 인해 전체 독일 시장은 돼지고기와 돼지를 비 EC국들로부터 수입해야 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동독의 돼지구획이 신축되는 동안의 일시적 상황일 것으로 간주된다.

● 네덜란드 · 덴마크가 EC내 주요 수출국

EC내 2개의 가장 큰 수출국은 네덜란드와 덴마크이다. 네덜란드의 돼지고기 생산은 현재 연간 약 1백85만톤이며, 현재 네덜란드의 양돈산업은 분뇨처리 문제 때문에 정부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대규모 확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에서는 높은 이윤으로 인해 최근 생산량이 1백40만톤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덴마크 생산자들은 그들의 상품을 요구하는 수출물량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고 있다.

유럽내 돼지고기 수출 성장 가능 국가는 프랑스인데, 이들은 1천2백만두의 돼지를 생산해냄으로써 (독일-2천6백25만두, 스페인-1천7백만두, 네덜란드-약1천3백50만두) EC내 전체 돼지 수량에서 4번째로 많은 돼지두수 보유국으로 위치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 프랑스는 돈육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술적, 경제적 바탕을 갖추고 있으며, 심지어는 순수 수출국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비록 스페인에서의 돈육 생산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스페인 생산량의 대부분은 스페인 국내 수요량을 충당하는데 소비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EC 국가들의 소비량은 경미한 증가를 보이는 반면, 전체 돼지고기 공급량은 더

증가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수적인 잉여 생산량이 창출될 것이라 예상되기는 하지만, 다른 국가들로 수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돼지 생산량에 증가가 있다면, 이는 농장주들을 원조하기 위해 정부가 30%의 사료 비용을 대고 농장주들에게는 30%를 할인해 주기로 한 EC국가들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 더 낮아진 사료 가격은 양돈과 양계생산자들을 더 고무시킬 것이며, 곡물 재배농가들 또한 사료곡물로 돼지를 생산하는데 더 공급하기로 결심할 수도 있다.

전체 유럽 시장이 통합됨에 따라, EC내의 양돈업자들은 비용이나 품질면에서도 더 극심한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별한 관심을 끄는 것은 최근 EC공동체 내의 주요 양돈국에게 나타난 성장세이다. 이는 경영의 형태, 사용되는 사료와 수용시설이 면밀하게 통제되는 생산 프로그램내에서 시판용 돼지고기를 생산해 내는 계획안에 의한 향상 결과이다.

● 유럽소비자 악몽 · 성장촉진제 잔류 없는 돼지고기 요구

유럽의 소비자들은 싸고 맛있는 고기뿐만 아니라, 동시에 돼지들이 복지 환경하의 잘 다루어진 농장에서 나온 상태의 돼지고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비교적 덜 집약적인 생산방법이 프랑스에서 증가하고 있고, 덴마크와 영국에서는 자유로운 수용시설 또는 야외 방목장이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서 훨씬 낫다고 주장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이의 여세로 상표가 부착된 돼지고기 판매가 시행되고 있는데, 상표에는 돼지들의 유전학적 기원이 알려져 있고 급여하는 사료에는 약품이나 어떠한 종류의 성장촉진제들도 배제되어 있다. 비록 이러한 돼지고기 생산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하더라도, 일부 소비자들은 이러한 것을 위해 더 비용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완전한 생산망이 조직되어 있고, 그로 인해 돼지고기의 위생과 안전이 보증되고 있다. 사료 제조 공장과 도살장들은 이러한 생산망 내에서 밀접히 연관되어 조직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하에서 생산자들은 생산성 향상을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유럽에서 농장을 소유한 사료공장과 육류공장의 통합 추세는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농장주들과 사료공급업자, 도살장들이 계약하에 연대되어 있는 곳에서는 급격한 통합 추세가 일고있다.

● 시장 유지위해 EC국가들 치열한 생산비 절감경쟁 예상

EC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다수의 돼지고기는 대형 슈퍼마켓을 통해 공급되고 있고, 이는 돼지들이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오늘날 그들(슈퍼마켓)은 통제되어 있는 구조 내에서 돼지고기 상품의 가격 할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할인은 경쟁요인이 소멸되고, 공급물량이 안정되면 줄어들게 될 것이다.

EC내 양돈업자들이 안고있는 문제는 별도의 요구량을 위한 돼지고기 생산에 있어 얼마만큼의 추가 비용을 감수해 내야 하는 것이다. EC내의 양돈업자들은 향후 몇년간 더 값싼 돼지고기를 동유럽으로부터 창출해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품질 면에서 동유럽의 양돈업자들과 경쟁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할때 생산자들이 그들이 획득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되는 돼지들로부터 더 낮은 이윤을 남겨야 하고,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